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5월 23일(금)
---(음력 4월 26일)---
Пятница
23 мая 2025 г.
№ 20 (1213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5월 24일 사할린주 학교들에서 '마지막 종소리' 행사가 펼쳐진다.
'마지막종'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기원한 전통으로 1948년 5월 25일에 처음 시행된 이후 러시아 학교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의 '푸쉬스티' - 러시아 공식적 최초 무인항공기 공항 대

로스아위아찌야(러시아 항공운송)가 사할린의 코로사코브 지역에 있는 '푸쉬스티' 간 이비행장을 최초로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해 선정된 공항으로 확정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회의에서 러시아 최초로 공식적인 무인항공기 공항이 생긴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러한 획기적인 소식은 무인항공기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어 무인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질서를 위해 기획 시점에서 본격적인 제반시설 구축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 기존의 교통체계에 무인기 통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 무인항공기 기술은 산업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분야 중 하나다. 현재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일한 영공에서 유인 및 무인항공기의 비행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러시아 최초 '푸쉬스티' 드론 공항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개발과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전환책의 검증을 위한 모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언급했다.

'푸쉬스티'간이비행장이 연계 된 새로운 지위는 주 및 연방 정부와 '오로라'항공그룹, 무

인항공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오로라 - 버스(무인항공기시스템)'의 체계적인 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운항에 따른 항공항법지원센터가 드론공항의 항공항법 정보의 합법화와 준비에 따른 작업을 수행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년간 극동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종합적 지원으로 경험을 쌓아왔다.

'오로라'기업의 대표이사는 드미트리 트레치야코브는 "러시아의 무인항공기 산업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다. 대형 항공기 분야에서 무인기 분야로 전환된 무인항공기 회장으로서는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 중 중요한 것은 항공기라는 사실이다. 창립 후 단기간에 '오로라-버스'가 이룬 성공은 단지 극동의 유일한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사를 기반으로 무인항공사를 창립하는 중요한 전략적 정책을 채택한 결과일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푸쉬스티' 드론 공항의 건립으로 '오로라-버스'기업은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리적 적용 범위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는 사할린 물류의 최적화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무인항공기 기술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할린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사할린주의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무인항공기개발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

무인기 제반시설개발에 부합하는 다음 단계는 드론들의 운항망 개발과 드론 공항망 구축이다. 명확하고, 안전한 경로 구축으로 다양한 경제산업의 유익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드론들이 착륙지점들을 이동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화물 배송, 지역에 대한 감찰, 긴급 수색 및 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방 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극동 및 북극개발부의 정책에 따라 무인기 공학 분야에서 첨단 해결책 검증을 위한 연례 모임을 사할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할린 지역에서 모든 환경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제 포럼인 <사할린의 날개>가 조성된다. 이에 러시아의 수십 개 지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들이 참가한다. 포럼의 주요 행사는 '푸쉬스티' 드론 공항 구역에서 진행된다.

단신

제 3회 <스마트 도시> 국가상, 사할린주 수상

<디지털 도시> 국가상은 도시 경제의 디지털정책 증진을 위해 조성된 연례 전 러시아 행사이다. 사할린주가 발표한 2개의 기획이 최종 수상후보에 오른 가운데 <순바닥 위의 도시>부문과 <창조적 경제>부문에서 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러시아 57개 지역에서 500명이 넘게 참가했다. 사할린주 디지털 및 기술개발부는 이 경연에 5개 방면에서 6개의 기획을 제출했다. 최종 수상의 자리에 <오스트로와. 65>(<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기획과 <오자론노스티(계발)' 인공지능 기반 발레>(<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작하는 러시아 최초의 발레>)기획이 올랐다.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장관에 올가 샤로와토와 임명

5월 30일부터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교체되어 사할린 출신으로서 기업구조에서 근무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경제개발부 차관직을 역임한 올가 샤로와토와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사할린주 정부, 첨단기술단지 설립을 위해 중국의 협력자 모색

사할린주 정부는 새로운 첨단기술단지 건설로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사할린주 투자, 산업, 대외관계부 차관인 세르게이 부렌코브는 5월 19일 -20일에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러-중 포럼에 참가하는 주된 목적이 중국과의 사업적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사할린주는 첨단기술단지와 초경량 제품 생산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중 유망한 부문은 생명공학, 융합재료, 정보화 기술, 인공지능, 무인항공기, 수소에너지 등이다. 사할린주는 최첨단 부문 개발 및 다각화 경제에 초점을 두기로 하면서 새로운 첨단기술단지는 지역의 산업적 잠재력을 강화하고, 아시아권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 재외투표소에서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를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진행한다고 공지한 가운데 사전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를,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를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야 한다. 사전등록은 30명이 했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진 율리아 역사학자의 특별강연

"소련시대의 사할린 한인들: 미즈호에서 나호드카까지"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려

5월 21일(수) 오후 3시 서울시 아 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에서 사할린 주향토박물관 부관장대행인 진 율리 야 박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올해 는 해방 80년, 한·소수교 35주년, 한· 일협정 60년을 맞는 해로 여전히 역 사속에 묻혀 있는 사할린 한인들 삶 을 조명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강연을 공동주최한 아시아평 화와역사연구소는 국내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역 사인식을 추구하는 곳으로 재외동포 청의 사할린 동포 기념사업 중장기계 획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KIN(지구촌동포연대)와 아시아 평화와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 번 강연은 안산에 영주귀국한 사할 린동포가 직접 찾아왔고, 온라인에 도 동포들 참석하며 한국에 거주 중 인 러시아어권 동포들이 함께 했다. 또한 강연에는 1920년대 사할린 한 인 이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준영(한양대)박사와 정영순 대한고 려인협회장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 심을 보였다.

진 율리아 박사는 강연을 시작에 앞서 사할린 한인들 역사를 후대에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 할린 동포사회가 노력한 점을 언급

하며 작년 사할린 향토박물관 1층에 사할린 한인 상설전시관이 열린 소 식을 전하였고, 최근 사할린 한인관 련 출판도 함께 전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전쟁시기 ▲ 일본군, 헌병, 민간인에 의한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 ▲ 일본인의 송환과 사할린 한인이 귀환하지 못한 이유 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소련 의 조치들과 무국적자인 한인들의 생활상, ▲ 사할린 한인들 귀환에 대 한 열망과 일본에서의 귀환운동, ▲ 그 과정에서 벌어진 나호드카 4인의 비극을 소개하며 사할린 한인들 소련시대 삶을 다각적으로 밝혔다.

특히 미즈호와 카미시카 외에 우시로, 지리코 등에서의 헌병, 경찰 의 학살 사건 등이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알렸고, 철수를 거부한 한인들 불태운 일본군 헌병 에 대한 심문사건과 소련군 종군기 자의 집단 학살 현장 사진을 공개하 여 주목을 끌었다.

한인들이 사할린에 남게 된 이 유에 대해 다방면에서 설명을 하였 다. 일본의 송환거부와 미군정의 무 관심, 신생정부 한국과 소련의 미수 교 상태도 언급하였지만, 일본인이 빠져나간 사할린 섬에 선주민으로 남아 있는 한인들은 전쟁 이후 사할



린 외부에서 대규모로 이주해온 소 련인들이 사할린에 정착하는 데 필 요한 존재였음을 설명했다. 즉, 일본 령이었던 남사할린의 모든 생산시설 에 대한 사용법과 관공서와 기업에 남겨진 일러자료의 이용에 한인들 이 필요했고, 사할린의 풍부한 수산 물과 산나물 등 식재료들의 활용 등 사할린 한인들이 터득한 '사할린 살 이' 방법을 새롭게 정착하려는 의지 에서 온 소련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진율리아 박사는 이러한 이유로 국경지대에 무국적자가 거주 할 수 없는 소련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국적 한인들이 사할린에 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연에서 진 율리아 박사는 사 할린을 점령한 소련은 초기에 2만3 천명정도의 한인은 인원이 많지 않 아 송환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앞서 설명한 여러 조건들로 인해 한

인들은 사할린에 남게 되었고, 샌프 란시스코 조약 이후 일본국적을 상 실한 한인들이 소련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조치를 하였음을 설명하였 다. 그러나 한인들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소련의 남사할린 점령 초기 처음 만난 소련군에게도 집으 로 보내달라 요청하였고, 스탈린에 까지 편지를 보내는 등 귀환의 의지 가 강했다. 일본의 2차 송환 때 일본 인처와 일본으로 간 사할린동포 중 박노학, 이의팔 등이 사할린한인 귀 환운동을 일본에서 활발히 펼쳤고, 그 영향으로 소련으로부터 출국 허 가를 받은 4명의 한인이 모든 재산 을 처분하고 일본영사관이 있는 나 호드카에서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 렸지만, 한일 간의 교섭과정에서 소 련의 출국허가일을 넘겨 비자가 발 급되어 다시 사할린으로 되돌아 갔 고, 사할린에서 사망한 비극의 역사 를 알렸다.

사할린에 남게된 한인들은 특유 의 부지런 함으로 낮에는 일하고, 저 녀과 주말에 농사를 지으면서 각종 야채와 꽃들을 시장에서 팔아 경제 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또한 자녀들 교육에 열성을 다하여 많은 사할린 한인들이 성공적으로 소련에 정착하 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사할린 한인들은 소련 점령 초 기 일부가 북으로 송환되고, 50년대 말 북한의 선전요원들이 와서 북한 국적 취득과 북한으로의 유학 등을 조직하여 약 5천여명이 북으로 가기도 하는 등 귀환과 관련하여 갖은 고통을 겪으며 한국으로 올 수 있었으 며, 1세는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K-pop 과 태권도,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계 승도 적극적인 차세대 청년동포들이 있고, 일본 한국과 가까운 사할린 섬 이 갖는 위치로 한인사회는 인구수가 점차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강연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다수 참가하여 시장에 야채 등을 내다 파는 이야기에 미소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등 마치 부 모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부하는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 었다. 자녀세대의 영주귀국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지원 프 로그램에 동포 이주사 등에 대한 교 육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소에서도 공감하 며 앞으로 이런 고민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상규, KIN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박물관들의 밤> 행사에, 수백 명 이상의 주민들 모여

5월 17일(토) 사할린주에서 <박물관들의 밤> 전 러시아 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불꽃발사 쇼, 활동교실, 몰입형 견학 등 100개가 넘는 행사들이 펼쳐졌다. 행사들은 다양한 문화기관 들에서 진행되었고,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는 감동적인 동 화를 주제로 한 몰입형 견학 형식의 <가보지 않은 길> 전시회 가 열렸다. <소브레멘니크(현대인)> 전시관에서는 러시아 소 비에트 연방 사회주의공화국의 공훈 예술가 기위 만트카와 탄생 95주년 기념 전시회 미리보기가 열렸다.

<미술공작소>에서는 예술-저녁만찬이 조성되었고, 향토 박물관도 전 러시아 행사에 합류해 분수를 개장하고, 불꽃발 사 쇼를 선보였다. 또한 이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전 80주년과 연관된 주제별 행사도 열렸다. 유즈노사 할린스크에서 열린 행사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방문해 2025년의 행사 주제인 '게로이(영웅)'를 상기시키며 "이 영웅 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 특수군사작전 지 역의 참전용사들과 의료진, 교육자, 박물관의 직원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하신 모든 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예술은 사할린의 외딴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표명 하고, 연극 및 서커스 공연, 전시회, 음악 공연을 개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낮에 시작되어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박물 관들의 밤> 방문객들은 활동교실과 도전게임, 행위예술 공연, 주제별 견학 등 많은 행사에 참여했다.

보여 200여 가지의 사건들이 'Night of Museums' in Sakhalin Region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Ночь музеев» прошла в суб-боту, 17 м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могли посетить свыше 100 событий, в том числе пиротехническое шоу,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иммерсив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и в различ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культуры. Так,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На неведомых дорожках» в формате иммерсивн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вдохновленного сказочными сюжетами. «Современник»

провел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оказ выставки к 9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заслуженного художника РСФСР Гиви Мантквы.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фабрике» состоялся арт-ужин. 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лся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там открыли фонтан, показав шоу с пиротехникой. В рамках акции провели события, тематически связанные с 80-летием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напомнил, что тема акции в 2025 году — «Герои».

«Это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ческие личности, но и наши современники: участники СВО, врачи, учителя, музейные работники и все, кто вносит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разил мнение, что искусство должно стать доступнее и ближе к отдаленным районам региона. Он сообщил о планах проводить театральные и цирковые гастроли, выставки, концерты.

Акция стартовала днем и подошла к концу глубокой ночью. Гости «Ночи музеев»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квестах, арт-перформансах, тематических экскурсиях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내 조국 - 나의 러시아> 전국 기획 경연 참가에 사할린주 178개 기획 제출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대통령 플랫폼의 일부인 <내 조국 - 나의 러시아> 전 러시아 기획 경연 참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 마감된 가운데 새로운 시즌에 참가를 위해 사할린주 에서 178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7만 4천 명 이상이 자체기획 들을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 높은 참여도와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내 조국 - 나의 러시아> 기획 경연은 지역의 사회-경제발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 으로 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에 관심을 가진 수백 만의 국민을 하나로 모았다. 참가자들의 대부분(90%)은 연령 이 14세부터 35세의 청년들로 이들은 13개 부문에서 기획들 을 제안하고 있다. 13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나의 가족관계 의 실타래>라는 특별부문이 규정되었고, 또한 연령 제한이 없 는 부문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청년세대와의 협력을 위 한 행사를 조성한다.

기획 신청 접수 마감된 후에는 비대면으로 전문가들의

기획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결과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300 개의 기획들이 선정된다.

경연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상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 기념식에서 수여한다.

최종 포럼 보도자료 영상은 브콘탁테(BKонтakte) 소셜 네트워크의 기획 경연대회 공식그룹에서 쉽게 시청할 수 있다.

<내 조국 - 나의 러시아> 기획 경연대회는 대통령 장려금제 단의 재정적 지원 아래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부인 <러시 아는 기회의 나라>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ала 178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Моя страна — моя Россия»

Завершили кампанию по приему заявок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Моя страна — моя Россия», являющийся частью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Более 74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178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али свои проекты на участие в новом сезоне,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ысок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стремлении в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За более чем двадцатилетнюю историю конкурс «Моя страна — моя Россия» объединил вокруг себя миллион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чьи идеи и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и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сновную часть участников (90%) составляет молодежь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они предлагают проекты по 13 направлениям. Для детей до 13 лет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пециальная номинация «Нити моей родословной». Также есть номинации без возрас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что создает площадку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опы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риема заявок проекты пройдут заочную экспертизу,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торой отберут 300 финалистов для очной презентации перед экспертами. Призы лауреатам вручат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ования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идеозапись итогов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доступна для просмотра в офи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конкурса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Конкурс «Моя страна - моя Россия» реализую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8면에 계속)

스승의 날, 사할린 한국어 교육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40년 들어보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안산 스포츠 레스토 랑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사할린한국어교육 협회(이하 사한회)' 주최로 '사할린한국어교육 자협의회(이하 사할린한글회)'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모스크바 에 본부를 둔 '사할린한국어교육자협의회' 사 할린 지부 소속 한국어 교육자들이 참석하였 다.

'사한회'는 1996년 창립한 대한민국 교육자 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사할린 한국어 교육을 위한 후원단체이다. '사할린한글회'는 소련시대 전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할린 출신 교육자들의 단체이다.

이번 행사는 '사한회' 임태식(당시 휘경초 등학교장) 초대 회장과 기미양 회장이 前 사 할린한국교육원 한만희 초대 원장과 함께, ' 사할린한글회' 창립 37년을 기념하고 한국어 교육자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할린한글회'는 구소련 1992년 11월 러 시아 모스크바에서 사할린 한국어 교육자들 이 창립한 단체로써 CIS 지역(우즈벡, 카자흐 스탄 등)과 러시아 사할린 등지에 지역별 지 부를 두고, 카자흐스탄 알타이에서 해마다 전 지부가 참석하는 총회 및 연수회를 실시하였 다. 이러한 사할린 출신 교육자들이 한글사랑 과 교육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모스크바 본 부와 러시아 전 지역 지부에서 '스승의 날'에 창립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한회가 사할린한글회 사할 린 지부와 공동주최로 매년 창립식을 기념하 고, 사할린 한국어 교육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사할린 한국 어 교육에 관심을 가진 대한민국 교육자들이 사할린 한국어 교육자들과 만나서 '사할린 한 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는 모임이기도 하 다.

1939년에서 1944년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부모님과 사할린에서 태어난 한국어 교육자들은 88올림픽 이후 러시아 전 지역에 세계적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 교육 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러시아와 중앙아 시아에 알려진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에는 초청자 32명 중 17명만 참석을 했다. 이 중 사할린 한인 참석자는 현재 사한 회 교사 정숙자, 전영희(前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 이진선(前 뽀로나이스크문화학 교 한국어교사), 박승의 교수(前 사할린국립대 학 한국학과), 최정순 회장(前 사할린한인여성 협회장), 박훈녀(前 사할린 제9학교 한국어교 사), 정옥녀(前 사할린 제9학교 교장), 이순자 ·이순자(前 사할린 제9학교 한국어교사), 정숙 자(前 빨간까치유치원 한국무용 교사), 이화숙(前 제4학교 중학교 교사), 이진순 ·최화순 ·김 인자(前 사할린 제9학교 한국어교사), 황은순 (前 크라스노고르스크 한국어교사), 김월년(前 사할린 제9학교 한국어교사) 등 전 현직 교육 자들이다.

15년 전 사할린에서 '사할린동포특별법'으 로 영주귀국하여 인천, 부산, 파주 등 28개 지 역에 이주한 한국어 교사들은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어를 무난하게 구사하는 1세 들이지만 공문서 제출하는 문서나 공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들이 여전히 한국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부터는 제2차 영주귀국자 약 1천 여 명 사할린 2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들의 도 움을 받고 있다. 여전히 한국에서도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길을 '동행'해 오고 있다.

사할린국립대학 박승의 교수는 러시아를 구성하는 200여 종 민족 중에는 자기들의 고유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다고 한다. 한 국어 교사들은 한국어와 한글을 가진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2세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써 왔다고 한다.

'사한회' 임태식 초대 회장 축사

1996년부터 사한회를 운영한 임태식 초대 회장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6년 만에 뵈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50세에 처음 사할린에 가서 만난 한만희 원장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공노 원 선생의 간절하고 끈질긴 편지에 감동을 받 고, 1996년부터 서울에 본부를 두고 사할린에 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된 지가 내년이 면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당시 한국에서 매 달 교육비를 지원하는 100명의 회원을 결성하 고, 지원금과 한복 701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1997년 사할린 제9학교에서 첫 한국어 수업을 맡으신 문경자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 준 높은 교육방식과 어린 학생들의 진지한 수 업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지병으로 갑 작스레 하늘나라에 가신,,, 한국어 교육에 앞장 선 2020년 작고한 사한회 허남훈 고문과 공노 원 부회장이 그립습니다."

임태식 초대회장은 지난 29년 동안 사할린 현지 한국어 교육에 힘써 왔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어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2세들을 대상으 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어로 이주한 전영희와 이진선 교 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업을 시작하고 있음 에 감사를 표하였다.

사한회 기미양 회장 축사

前사할린한국교육원 한만희 원장 축사

前사할린국립대학 승의 교수 답사

이어 2020년 1월부터 공노원 씨와 함께 공 동 부회장을 맡아오다가 2022년 4월 임원회의 에서 추대를 받고 6월 1일에 제2대 회장으로 위촉되어 취임한 사한회 기미양 회장은 축사예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힘 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학교가 없어 지고 나서 88올림픽 이후 한국어 열풍이 일어 나자 교사들이 일어나서 열악한 경제적 지원에 도 불구하고 한평생 한국어 교육에 매달려 오 신 헌신으로 하여, 러시아에서 한국어 실력은 고려인들보다 사할린 동포가 일등입니다. 30년 동안 사한회를 이끌어오신 임태식 초대회장님 과 공노원 부회장님의 동포애와 한글사랑에 고 개가 숙여집니다. 사할린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우리 사한회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 니다. 스파시바(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사할린한국교육원 한만희 초대 원장은 "30년 전 사할린으로 고 모님의 흔적을 찾아 오신 임태식 휘경초등학교 장을 만나자 사할린 한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에 힘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공노원 선생도 임태 식 회장님께 1년 동안 100통의 편지를 보내서 탄생한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큰힘을 보태왔습 니다. 오늘 사할린 교육자들을 다시 만나니 그때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기억이 생생하게 떠 오릅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승의 교수는 답사에서 "사할린대학교에 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수백 명 제자들이 러 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자가 된 경우는 현재 2명 뿐입니다.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실정이고, 대학에 서 한국어를 배우면 바로 한국에 나가서 취업 을 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할린에는 한



(위에서 첫째줄 왼쪽)박훈녀, 정옥녀, 이순자(인천), 이순자(양산), 전영희, 정숙자, 이화 숙, 이진선, 최화순, (둘째줄 왼쪽)김인자, 최정순, 기미양, 임태식, 한만희, 박승의, 황은순, 김월년. (사진=사한회) .2025.05.15.

국어 가르치는 전공 교사들이 없습니다. 그 런데 사할린1세 공노원(사한회 부회장)선생같 은 교육자들이 헌신한 덕에 사할린 한인 학생 들이 한국어를 배웠다고 봅니다. 우리는 벌써 팔순이 넘어갑니다. 국악신문 기미양 대표를 사할린과 한국에서 만난지 10년이 되어갑니 다. 이제는 사한회를 맡은 기미양 회장에게 많 은 기대를 걸어봅니다"라고 전했다.

사한회 전영희, 이진선, 최정순 현재 교육체험 발표

이어 지난 2022년에 영주귀국한 사한회 전 영희, 이진선 교사가 김포와 인천검단에서 사 할린 2세 대상 한국어 교육을 무료강의를 시 작하게 되면서 맞닥뜨리는 현 실정에 대해 설 명했다.

김포 통진읍에서 활동하는 전영희 교사는 "한국에 오자마자 2세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 하니까 우리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며 "지금도 나라에서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는 한 국어로만 수업을 하니 3년을 배워도 모르겠다 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교재도 없지만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면서 이제는 조 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환하게 미소 를 지었다.

인천검단에서 활동하는 이진선 교사는 "새 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식사 준비하고 나면 8 시부터 전화를 받아요. 처음에 한국에 오니 서 류작성 하는 것이 많아요. 50명이 왔는데 한국 어를 아는 사람은 저 혼자이니까 동사무소, 병 원까지 동행을 해주어야 해요. 어디가 아프냐 고 하면 제가 의사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해요. 처음에 인터넷 설치부터 핸드폰 전화 신청서 작성까지 다 도와줘야 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제가 남편과 함께 직접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 습니다. 1주 3일 수업이지만 개인교습도 해주 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잠 잘 시 간이 모자라요. 그래도 한국어가 늘어가는 모 습에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인천통진읍 사할린동포회 최정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i6이어 "그래서 3년 전 전영희 선생에게 부 탁을 해서 '한국어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을 빌 려 쓰다가 주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어서 한국 어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강력하게 나서서 장소는 해결을 했지만 복습을 할 수 있는 영상강의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한 국어를 할 줄 알아야만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할 수 있어야 한국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2차 영주귀국한 사할린 2세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5세가

지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 할린 현지와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자들을 위 한 기본적 메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현 실이다.

'사할린한국어교육자협의회 사할린 지부' 한국어 교육자 황은순·이화숙 체험발표

이어서 무대에 나와서 사할린 교육자들이 한국어 교육 40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자신들이 겪어낸 체험을 생생하게 발표하였다.

황은순 교수는 "올해는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지 37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할 린에서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열망도 컸지만 이 를 뒷받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임태식 회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화숙 선생은 "저는 러시아에서는 남편 성 을 따라야 하기에 신화숙이 아닌 이화숙입니 다. 올해는 신동식 오빠하고 같이 못왔습니다. 건강상 힘들어서요" 이어 "임태식 회장님의 30 년 열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만희 원장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사할린 제21학 교에서 처음 한국어 수업을 할 때, 당시 너무나 추웠는데 따뜻한 난방도, 프린트, 팩스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너무나 추운 한국어 첫 수업 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감사의 인 사를 전했다.

'사할린한국어교육자협의회 사할린 지부' 정옥녀 회장

이어 사할린한국어교육자협의회 사할린 지부 회장 선출에 의해 정옥녀(75세) 씨가 회 장으로 선출되었다. 고문에 변영중 총장, 부회 장에 황은순, 총무에 이순자 씨가 위촉되었다.

정옥녀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는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자로 살았다는 것 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 고 인사했다.

사한회는 다음 모임에서 부산에서 파주까 지 전국 28개 지역에 제2차 영주귀국한 2세들 에게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찬회를 하고 나서 임 태식 회장이 박훈녀, 정옥녀, 이순자(인천), 이 순자(양산) 전영희, 정숙자, 이화숙, 이진선, 최 화순, 김인자, 최정순, 박승의, 황은순, 김월년 선생님, 이렇게 이름을 한번씩 불러드리면서 기념 사진을 찍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모두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사한회는 '사할린 한국어교육 30년사' 출판 (2026년 예정)을 위해 30여 명의 한국어 교육 자들에게 체험수기를 요청하였다.

김바다 기자 (출처: 국악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ддержал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уличной фотовыставки о журналистах-фронтовиках

На Аллее журналис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скоре будет открыта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ветеранам, которые героически сражались на фронта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 позже работали в сахалинских СМИ.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е журналисты-фронтовики» мэру города Сергею Надсадину 21 мая представил на выездном совещан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Работа над проектом продолжается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 архивах обнаружены уник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сказывающие о судьб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редакторов, телережиссеров. Материалы о них уже начали публиковать газеты и интернет-порталы, в эфире радио и телевидения вышли первые программы о работе над проектом. Заказаны 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будущей фотовыставки на Аллее журналистов, создаются макеты стендов.

Мэр города поддержал иде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 Этот сквер приобретет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напомнит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о подвигах героев, - сказа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сохраним память об участник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



ной войны из числа журналистов.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тем более у нас год восьмидесятилетия Побед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от имени всех коллег-журналистов поблагодарил главу города за поддержку, а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ка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лен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Екатерина Каширина.

На совещании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сквера, где находится Аллея журналистов. Мэр поручил продум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зеленение, высадку цветов и кустарников.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что осенью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здесь

снова пройдет акция,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й сотрудники редакций городских СМИ смогут высадить «свои» деревья, размест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таблички.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иобретении посадочного материала также окажет муниципалитет. Кроме того, на стене строения, примыкающего к скверу, будет создан тематический мурал,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фессии журналиста.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е журналисты-фронтовики» реализу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Энергия».

Партнерами проекта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Ох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медиахолдинг «АСТВ», газета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Все о калужнице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крыл ежегодную летнюю серию «Дикоросы».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слушали лекцию от экскурсовода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Дениса Кулакова на тему «Дикоросы в кухне аборигенов Сахалина». Слушатели узнали о видах традицион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употребляемой в пищу, а также о необычных рецепта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был проведе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алужницы.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ак,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ссказала гостям, как правильно собирать дикорос, подготавливать, какие специи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как правильно хранить. Такж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дегустация салата из калужницы,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напоили вкусным ча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Кимчи – достоян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Кимчи! Как много в этом звуке
Для сердца корейского слылось,
Как много в нем отозвалось!*

Да, простит меня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за такую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ь! Но, в самом деле, это кушанье, история которого исчисляется не одной сотней лет, а то и тысячами лет, для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сродни самому родному – это натруженные материнские руки, домашний очаг, горячая рисовая каша паб. Для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кимчи был одним из немногих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х кушаний, которое в «японские годы» удалось воссоздать на острове, адаптировав его к местным условиям. Обязательную пекинскую капусту выращивали у себя на огородах, также как и чеснок, который в силу климат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Сахалина редко давал достойный урожай. Поэтому заказывали в далекий Ташкент вместе с жгучим красным перцем, т.к. магазинный напоминал молотый кирпич. Обычно в заготовке на долгую зиму участвовала вс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 кимчи должно было хватить на все зимние и весенние месяцы, при том, что оно было основным блюдом на корейском столе. Жарили с мясом, варили суп на соевой пасте, добавляли в фарш для пельменей и пянсе.

Кимчи получил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знание, правда, довольно позднею, (может, в силу своих специ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Только в конце XX века его признали национальным достоянием и внесли в анналы ЮНЕСКО. Но в 2006 году специалисты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явили, что ж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требляют соли в 2,7 раза больше рекомендованных объемов и обвинили в этом любимое корейцами кимчи. Также, вероятност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рака, опять-таки из-за употребления кимчи, объясняется большим содержанием в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х овощах химических радикалов, таких как нитрозогруппы.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огласно исследованиям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льтуры, люди, зараженные птичьим гриппом, выздоравливали после добавления в пищу бактерий,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йдены в кимчи. А во врем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атипичной пневмонии в Азии в 2003 году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верили в то, что кимчи может помочь против инфекции, хотя научн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этому не был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снижение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зафиксировали. И, напоследок, южнокорейцы связывают употребление кимчи с защитой от ковида – по слухам коварный вирус пасует перед вековым кулинарным изобретением. Вот такие крайности в одном блюде!

Вообщ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корейцы весьма щепетильны в вопросах первоисточника и искажений рецептур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стояния. Так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попытки внести поправки в Кодекс Алиментариус, запрещающие называть кимчи продукты,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рейской кулинарной традицией, а японцам запретили называть кимчи блюдо, которому они осмелились дать такое название. И, чтоб другим неповядно было, в 2001 году был принят стандарт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имчи способом,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м именно в Корее.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корейцами многое делается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ренда, в Кванджу, например,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был открыт музей кимчи. В апреле 2008 года первая корейская женщина-космонавт Ли Со Ён взяла кимчи с собо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станцию, про реакцию коллег-космонавтов история умалчивает.

Не менее популярен кимчи и в островном крае. Круглый год на столе сахалинцев он представлен в самых его различных вариациях: жареный, тушеный, в супе, в пельменях, пянсе и т.д. Эти «новшества» в традиционную рецептуру сахалинцы внесли, совершенно игнориру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тандарт, и, кто знает, что еще придумают с любимым всем Сахалином кушаньем предприимчивые островитяне! Кста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жител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ола и возрас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вы можете увидеть приготовление кимчи в рисунках Марины Тен,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Только не забывайте нажимать на рисунок, изображенный на выдвинутых ящиках.

Ким Ен Хи

(Источник: <https://t.me/koreanssakhalin>)



Встреча АКРК с Департам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г.Инчхона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нха

16 мая 2025 года в офисе АКРК в Хамбак майль (Саданчи) состоялась рабочая встреча АКРК с Департам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г.Инчхона (отде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глобаль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세계시민교육과)). В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ха во главе с директором Ким Ёнсуно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КРК донесли д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и профессоров информацию об основных трудностях,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корё-сарам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х детей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С вступитель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АКРК Жанна Тен, имеющая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работы в системе школьного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хорошо знакомая с проблемами адаптации и обучения детей корё-сарам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Она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ной поддержки билингв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кадров, в том числе из числа корё-сарам.

Основной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ила Анна Че (Комитет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КРК), котора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работает переводчиком и билингваль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в школах Инчхона и Ансана. Она осветила ключевые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билингвальные педагоги, и подчеркну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нижения регуляторной нагрузки и устранения бюрократических барьеров, препятствующих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е специалистов.

Следом выступила член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КРК Екатерина Огай, возглавляюща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района Йонсугу «Такачи» (연수구 다가치 배움터) в Хамбак майль. Она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на эффектив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актики интеграции мигрантов, где билингв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признано эффекти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адаптации детей в школьной системе.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АКРК Наталья Лим акцентировала внимание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собенно школьников, об истории появлен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Кроме того,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важность полового воспитани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табакокурения и наркомании, проводимых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как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так и их родител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Инчхона и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ха с интересом выслуш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и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и устранения выявленных проблем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а также продвигать успешный опыт Инчхона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Они также отметили ва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подобных встреч в будущем,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только в диалог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ё-сарам возможно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ая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звивалась в рамках моноэтничного подхода.

Следуе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АКРК не впервые поднимает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лее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подхода к обучению детей корё-сарам, с учётом их языков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пецифики. Прият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дискуссия, ранее носивша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учный характер, всё чаще переходит в практическую плоскость и обсуждается с теми, кт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лияет на принятие решений.

Как отметила президент АКРК Жанна Тен, только посредством открытого диалога с корё-сарам возможно постро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и справедливой системы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преодолет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при этом не требуя отказа от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и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прервать порочный круг маргинализации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Вадим Акуленко
(Телеграм-канал АКР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чалось зарубеж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С 20 по 26 мая проходит досроч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на 21-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Для его провед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ны 223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а при 182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РК в 118 странах мира.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ки впервые работают в четырёх странах, где недавно открылись посольства РК: на Кубе, в Люксембурге, Литве и Эстонии. Центральн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рекомендует заранее уточнять сроки работы участков на сайт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поскольку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голосования мож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от одного до шести дн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ных условий. Избиратели, принимающие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за рубежом, должны иметь при себ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с фотографией - паспорт или ID-карту. Между тем, избирательные бюллетени были изготовлены и разосланы в зарубежные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до того, как Ку Чжу Ва от Свободной парти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нял свою кандидатуру. Поэтому голоса, отданные за него, будут считаться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В РК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жертв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я

18 мая в РК отметили 45-ю годовщину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которое развернулось в 1980 году в Кванчжу и регионах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Оно стало выражением протеста народа против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ы тогда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Чон Ду Хвана. Памятной дате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вшаяс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Кванчжу.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окол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у Хо и кандидаты в президенты, в том числе, Ли Чжэ Мён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ун Сок от партии Новых реформ и Квон Ён Гук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Необходимо идти в будущее, уважая мнения других людей и помня о тех, кто отдал свою жизнь в борьбе за демократию», - заявил Ли Чжу Хо,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Дух солидарности и единства, который Кванчжу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45 лет назад, актуален и сегодня», - добав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Делегация Р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Генассамблее ВОЗ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делегация Р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78-й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которая пройдёт в Женеве с 19 по 27 мая. Её тема - «Единый мир во имя здоровья». Заседание откры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ОЗ Тедрос Гебрейесус, после чего выступ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аж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члена.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Хон в своём вступлении призвал страны-члены ВОЗ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 основных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ВОЗ и регион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ВОЗ для стран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

Ли Чжэ Мён предлагает внести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Кандидат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редложил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стран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сокращ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до четырёх лет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избираться на второй срок. Один пятилетний срок президентства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 1987 году. Ли Чжэ Мён предложил совместить референдум по поправкам с местными выборами в 2026 или парлам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 в 2028 году. Он также призвал ввести систему второго тур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нужные соци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а также требовать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одобрения при назначен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и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роме того,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ограничить президентское право вето и сделать обязательным получение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согласия, когда президент намерен объявить чрезвычайное положение. Поправка о двух сроках не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к действующему президенту.

Рис из уезда Хадон-гун отправлен в Японию

Рис, выращенный фермерами уезда Хад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начал поставляться на японский рынок. 20 ма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тгрузки,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кооперативом уезда Хадон-гун. В первой партии 40 тонн риса (10 тысяч мешков)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80 тонн. Рост цен на рис в Японии, вызванный неурожаем и перебоями в поставках, повысил спрос на импортную продукцию, включая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рис.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отметили, что это первая поставка риса из Кёнсан-Намдо в Японию, назвав её важным шагом к расширению экспорта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регион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Японию будет поставлено ещё около 200 тонн риса, выращенного в провинции.

Фаворит президентской гон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идит в России важного партнер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йчас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президентская гонка. Согласно всем опросам, главным претендентом на победу на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уже 3 июня, является кандидат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Один из экспертов, входящий в пул советников Ли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огласился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рассказать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как Ли в случае избра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мерен выстраивать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как хотел бы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что хотел бы поменять для улучшения связей с Москвой.

Если Ли Чжэ Мён станет президентом, какие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будут стоять перед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ой Южной Кореи?

Эксперт: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танет прагматичный подход,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Ли Чжэ Мён намерен преодолеть идеологическое и блоковое мышление, характерное д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и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практическом решении задач.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ША, Китаем, Японией и Россией акцент будет сделан на баланс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ША продолжится, но односторонняя зависимость исключается.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ем, Россией и даже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будут выстраиваться, исходя из ре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страны

Планируется ли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Эксперт: Д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ереустройство эт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основе прагматизма. Союз с США и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ША и Японией сохранятся, но без перекося.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Ли Чжэ Мён будет искат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особенно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речь идет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логистики, энергетики, транспорта,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озможна ли организация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 Россией?

Эксперт: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Речь может идти как о телефон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между лидерами, так и об отправк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ет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и гибкий подход к России, подчеркивая важность прагматизм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ие позиции у Ли Чжэ Мёна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Россией, особенно в контекст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Эксперт: О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орт Пусан как ключевой узел для выхода на Арк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того пути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логистическое плечо между Пусаном и Европой с 20 000 до 15 000 км и уменьшить срок доставки с 40 до 30 дней. Это серьезно повысит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крайне важное.

Возможна ли гибкость в санк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оссии?

Эксперт: Ли Чжэ Мён критически относится к конфликти, опираясь на нор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но

выступает за гибкую политику, минимизирующую ущерб дл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зможно ослабление санкций на основе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Если американские компании вернутся в Россию,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может пересмотреть свою позицию.

Какова его позиция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России в процессе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Эксперт: Ли Чжэ Мён продолжает традицию "политики мира и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в духе Ким Дэ Чжуна, Но Му Хёна и Мун Чжэ Ина. Он считает Россию важным игроком в процесс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разрядки. Его команда работает над обновлением политики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и "Новой южной" кооперации, акцентируя роль России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Усиление диалога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приведет к изменениям в альянсе с США?

Эксперт: Нет. Приоритетом остается "прагмат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основанная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будет усиливаться в практических сферах: логистика, энергети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поставки. Но это не подрывает альянс с США - скорее, это расшир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и укрепле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и.

Каковы взгляды Ли Чжэ Мёна на новую многополярнос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 роль Южной Кореи?

Эксперт: Его команда считает, что мир стремительно переходит от американской однополярности к новой многополярной системе.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Юж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выйти из роли "младшего партнёра" США и стать полноценным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Западом и Евразией, максимально используя своё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один из столпов будущей дипломатии.

Как Ли Чжэ Мён оценивает стратегию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ем?

Эксперт: Он критически относится к стратегии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так как считает её чрезмерно идеологизированной и антикитайской. Ли выступает за то, чтобы дипломатия опиралась не на "врагов и союзников", а на ре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 экономику, мир, выживание. Он подчеркивает: "мир, пусть даже трудный, важнее победы, достигнутой ценой миллионов жертв".

С Китаем он планирует строить прагматичное и неантагонистич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скольку Китай - крупнейший торговый партнёр Кореи.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итаем - ключ к устойчивому росту страны.

Подводя итог: какова основная ли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Ли Чжэ Мёна?

Эксперт: Это курс на баланс, прагматизм и расшир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горизонтов. Он исходит не из логики "ценностей", а из логики выгоды и мира. Россия и Китай - важные партнеры в новой многополярной системе, и Ли Чжэ Мён намерен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позиций Южной Коре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Вузы России и КНД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сшир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1 ма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ректоро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России и КНДР,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чти 70 вузов двух стран.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и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а также обмена студентам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Я надеюсь, что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родолжат развиваться, а обмен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вузами станут ещё крепче», - заявил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форуме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КНДР Ли Чхан Сик. Ректор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Борис Коровец отметил,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оссийских вузах обучаются около 180 студенто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олее четырёх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том числе, около двухсот -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KBS World

РК и Россия возобновили консуль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сле семи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РК и Россия возобновили консуль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21 мая в Москве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директоров консульских департаментов министерст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вух стран Юн Чжу Сока и Алексея Климов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уровень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основе Консуль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и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ном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виз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обеих стран. В тот же день Юн Чжу Сок встрети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ндреем Руденко.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сообщении на сайте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с обеих сторон была отмечена важность поддержания регулярных контактов 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двух стран».

KBS World

Пианист Син Ён Хо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конкурсе в Дублине

18-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узыкант Син Ён Хо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пианистов в Дублине. В финальном туре он исполнил Концерт для фортепиано с оркестром № 2 Рахманинова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Ирландии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Йонаса Альбера. Вместе с дипломом лауреата он получил приз в размере 10 тысяч евро.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 Картер Джонсон из Канады, а треть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Энсон Ин Сун Вонг из Гонконг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ианистов в Дублине проводится с 1988 года каждые три года. В нём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пианис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29 лет.

KBS World

RKI

В России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официальный дронпорт – «Пушистый»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Росавиация утвердила аэронавигационный паспорт посадочной площад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эксплуатации только беспилотными воздушными судами, иными словами – дронпорта. Им стал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Новость о появлении первого официального дронпорта в России озв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открывает новую страницу в развити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и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переход от точечных проектов к созданию полноц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регулярных и безопасных полетов беспилот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создает основу для интеграции дронов в существующ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систему страны.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спило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 одно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егодня наш регион –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России, где разрешены полеты беспилотных и пилотируемых судов в одном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 в первом в России дронпорте «Пушистый»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эксплуатации дронов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и апробации передовых решений в области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своение «Пушистому» нового статуса стало результатом планомерной работы област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Аврора», в том числе «Аврора – БАС»,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развитием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систем.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и легализации аэронавигацио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ронпорта выполнил Центр аэронавигац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летов (Центр АНОП). Его специалисты имеют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по комплекс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полетов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Беспилотная отрасль в Росс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меня как для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ишедшего в отрасль из большой авиации, очевидно, что какая бы авиация не была – пилотируемая или беспилотная – она, прежде всего, авиация. И все успехи «Авроры – БАС» за столь короткий период после ее создания – это всего лишь следствие того, что было принято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е решение создать беспилотную компанию на базе еди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еревозчика –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БАС»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Создание дронпорта «Пушистый» позволит 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БАС» расширить спектр услуг и повысить 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хват.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за счет оптимизации логистики, мониторинга территорий и решения других задач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спешный опы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ет стать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развити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Следующий логичн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беспило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разработка маршрутной сети для дронов и создание сети дронпортов. Создание четких и безопасных маршрутов позволит беспилотникам перемещаться между посадоч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выполняя полезные задачи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 к примеру, по доставке полезных грузов, мониторингу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едению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й.

Напомним, по решению федер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ежегодные сборы по апробации передовых решений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 6 по 8 сентябр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 не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сятков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БРИКС. Основные события форума состоя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онпорта «Пушистый».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градили на III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Умный город»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емия «Умный город» – это ежегодное всероссий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целенное на продвижение цифровых решений в городском хозяйстве. Два проекта,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ошли в число финалистов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дипломы в номинациях: «Город на ладони» и «Креа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В этом году заявки подали более 500 участников из 57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ло на конкурс шесть заявок по пя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число финалистов вошли проекты: «Острова.65» и «Балет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заренность».

– «Умный город» – это ключев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демонстрации передовых решений в цифровизации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Учас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тверждае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недрения инноваций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 подчеркнул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а.65» – цифровая платформа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объединяющая различные услуги и сервисы. Приложение разработа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

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рвис позволяет сахалинцам найти магазины с минимальной стоимость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иложение уведомляет о реализации доступной рыбы. Кроме того, пользователи 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в приложении ски-пасс и оплачивать услуг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 скидкой до 10%. Также в приложени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ертификат на посещение водных аттракционов.

В разделе «Медицин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мотреть историю посещения медучреждений и назна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сещения. Окно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хранит информацию о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получении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компенсациях за оплату жилья студентам, а также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ервис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авить мнения о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ах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Наш двор. Наш подъезд»,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и входные групп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Приложение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моби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 Android и iOS.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латформой пользуются уже более 118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Балет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заренность» – это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балет, созданный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месте с артистами Михайловского театра оперы и балета историю молодой семьи инженеров рассказали артисты театра танца «Диалог»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Отметим, премия проводится Минстроем России и организована Центром компетенций «Умный город»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инцифры, Минпромторга, Минэнерго, МЧС и Минтранса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о обучение в сфере цифровизаци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мастер-планирования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алинТе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сь д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 «Применение пространственных данных в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е и цифровизация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мастер-план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тарте обучения для почти 100 участников-слушателей программ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ибыли из соседн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и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 Мастер-план – это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формирует стратегию 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е развитие. Это новаторство,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Наведение порядка даст огромное развитие для бюджета, поним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Если в мастер-плане есть пакет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это становится жив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по долгосрочному эффектив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региона. И без проек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у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ми это не станет реальностью,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обуче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РДВ) мы продолжаем работу по реализации мастер-планов. То настоящее, которое есть на Сахалине, должно стать будущим наш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меет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оптимизации процедур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Регион является передовиком,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мастер-план реализован. Есть чему поучиться. Уверен,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уктивной и принесет результаты,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Григорий Смоляк.

Участника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нтенсивов стали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из различны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Нижегородской и Владимирской областей. Обучение сформировано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Читать лекции и 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будут ве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отрасли – директоры блока «Активы ВЭБа: новые решения» Дарья Чигарева и Софья Галкина,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архитектуры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Филюшкин, руководитель ФКУ СО «Региональный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цент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Устинов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ИТ развития Институт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Град» Анна Сазонова и другие. Помимо курсов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вперед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оявление полноценной дисциплины в сфере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цифровизации и полного цифрово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 Регион развивается стремительными темпами, в том числе в цифровизации и мастер-планировании. Уникальность программы, на которой вы будете учиться, в том, что она родилась из практи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 подготовле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аши дни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и наполнены новыми знаниями, обсуждениями и поиском совместных решений. Вы не просто получите знания и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вместе с нами вы станете частью большой команды по достижению цел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территорий, – поделился ректор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а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сделала генплан и мастер-планы на все районы и го-

рода. В их основе лежит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зработана комплекс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ластера, жиль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означены и размещены вс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силы – переработка нефти, шельфовые проекты, технопарк, агропарк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ыделены участки под 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и площадка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леса. Представлено турис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определены зоны, где появятся гостиницы, пляжи и зоны отдыха. Разработан мастер-пл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агломерацию вошли Долин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и Анивский районы. Все это объединен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ой, а также автобусным сообщением. Появились 12 новых остановочных пунктов, заработали новые пересадочные узлы. Все эт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то, чтобы регион стал самодостаточным и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жизн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ахалин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бизнес-миссии в Кита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олее 30 китайских компани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еловых связей и расшир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ЦПЭ)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в формате B2B, в ходе которых шесть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отенциальным иностранным покупателям.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 компании «Сако», «Янтарное» и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которые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на поставку образцов продукции: печенья, мармелада, кваса и рыбных консервов.

–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налаживани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бмена опытом. Подписа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позволяют обеим сторонам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ачеством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продукции, а также создать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расширения товарооборота и укреплению позиц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знес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алентина Бычкова.

Отметим, региональный ЦПЭ входит в структуру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и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сахалинс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на всех этапах выхода на внешние рынки. Работа ведё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операция и экспорт» и «Эффективная и конкурент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ые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х реализац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риру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слуг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бесплатно или на условиях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одробнее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в выходе на зарубежные рынки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exporth65.ru или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8 800 222 0123 (доб. 3).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 ускоренные сроки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проблемные подвал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оперативн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подвал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оторые затопляются грунтовыми водами и нечистотами. Работы должны быть выполнен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стартовавш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сной.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р ЖКХ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доложил,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 один подвал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На текущий месяц запланирован ремонт двух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Основной объем работ придется на летний период.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141 подва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Программа разбита на три года, за которые мы приведем в порядок всего 343 подвала в регионе, – привел данные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самые проблемные помещения должны быть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в этом году.

– Вы сделали трехлетний план на случай, если денег на все подвалы не хватит. По-чиновничьи это правильно, а по-человечески – нет. Если подвалы текут, это пожарная ситуация. Буквально все такие подвалы нуж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апремонта и подготовки к зиме. Без обсуждения, сколько это стоит. Легче один раз ликвидировать эти безобразия, чем постоянно откладывать нечистоты и извиняться перед людьми. Откуда взять информацию, где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первоочередно? Откуда поступали жалобы весь год – там и ремонтируйте. Включите в план на этот год больше подвалов, если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Еще лучше – выполните всю программу за год. И прежде всего важно поменять ветхие инженерные системы, а не побелить и покрасить, – дал поручени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облема ветхих подвалов сохраняет остроту. С начала года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ступило 342 обращения на подтопления помещений.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апремонта, запущенно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ремонт подвалов МКД проведут во всех 18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требно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отремонтируют или заменят внутридомовые сет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проведут работы по отводу грунтовых вод и гидроизоля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언협, 21대 대선 앞두고 첫 '재외동포정책 공개 질의 토론회' 개최

“재외동포 언론인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계한인언론인협회(세언협, 회장 김명근)가 마련한 재외동포정책 토론회가 지난 13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언론단체 최초로 개최된 대선 정책 토론회로, 차기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세언협 김길수 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주요 선거대책위 인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기헌 의원(고양을,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개혁신당에서는 김두수 정책특임단장이 참석해 각 당의 재외동포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을 소개하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했다.

세언협은 “회원들의 사전 질문을 취합해 각 당에 전달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선 공식 입장 청취의 자리가 되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은 대선 후보자와 각 당의 공식적인 재외동포정책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 대상 금융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제 폐지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에서 하향 조정 ▲재외동포 비례대표 의원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마련한 재외동포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단체사진 (C) 공동취재단

배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역할 확대 ▲한글학교 지원 증대 ▲재외언론사 지원 방안 ▲민주평통 해체 또는 인원 축소 등이다.

각 당 패널들은 사전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거나 현장에서 메모하며 성의 있는 태도로 질의에 응했다. 특히, 이날 나온 답변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토론회에 패널을 파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세언협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서울)=세언협】 공동취재단

재외동포청, '꿈너머장학금' 받은 국내 체류 고려인 학생 격려

사단법인 너머, 고교생 및 대학생 등 20명에게 연간 7천 2백만원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신은철)에서 주최한 '제4회 고려인꿈너머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수여자들을 격려했다.

(사)너머가 2021년부터 시행중인 「고려인꿈너머장학사업」은 SDB인베스트먼트(주)의 지정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인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거주 고려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20명에게 연간 7천만원 규모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2025년 장학금 선발인원 : 고교생 5명, 대학생 15명

이 단체는 2011년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인 한국어수업, 초등저학년 돌봄 및 방과후 교실, 상담소 운영, 통번역행정 지원, 전국고려인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고려인의 국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및 무국적 고려인에 긴급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은철 (사)너머 이사장은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며, 이 소중한 귀한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장학생들이 배움에 정진하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후원자 유복순 시크리티스 대표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



번 장학금이 한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이기성 국장은 장학생에 선발된 고려인 학생들을 축하하면서 “정부를 대신해 매년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동포청도 동포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생 대표로 천 미엘라 학생은 후원기관에 “국내체류 고려인 학생들은 민간장학금 외의 장학제도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위로와 응원이 된다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성장해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유복순 시크리티스 대표,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 김효진 경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대한고려인협회 등이 참석하여 고려인 학생들을 축하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카자흐·아제르에서 'K-스마트팜' 기술 알리며 수출상담 '성황'

농식품부-코트라(KOTRA), 2025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수출기업 11곳 참여해 상담 101건-수출 양해각서 4건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코트라(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직접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 대 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해 101건의 수출 상담이 완료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불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약 500백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 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 농업 박람회



국내 기업과 CIS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 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와 코트라(KOTRA)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정책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코트라(KOTR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코트라(KOTRA)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주최 '제15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이기성 국장 개막식서 “중국동포사회 지속된 단합과 지역사회 기여” 기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5월 18일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5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총회장 김세광) 주최로 11개 산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날 대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개최된만큼, 대회에 참석한 중국동포들은 대회 시작에 앞서 광주민중화운동 희생자분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2025년 1월 취임한 김세광 신임 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마음체육대회가 15회를 맞이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중국동

포사회의 단합과 권익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또한 함께 지리한 장인홍 구로구청장, 중흥늬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 등도 축사를 통해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는 국내 체류 동포들이 2006년 창립했으며, 현재 한마음장학회, 한마음축구협회 등 총 11개 산하단체 3,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한마음연합총회는 매년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대구시, 영등포구청에 팬데믹 시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2023년 청주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해왔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소셜네트워크에 미소녀로 행세한 사할린 남성, 구애자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로 약 40만 루블리 갈취

포르나이스키시 법원은 마카로브시 남성 주민이 미녀 행세를 하며 자신의 구애자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로 약 40만 루블리 갈취한 행위가 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의했다. 알렉산드르(25세)라는 이름의 청년은 소셜네트워크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계정에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고(사진 자료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음), 이를 통해 남성들과 교류하며, 개인적 친분을 쌓기 위해 남성들을 속여왔다.

그는 주로 밤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주요 목적은 물론 돈이었다. 이 가짜 소녀에게 끌린 남성들은 미녀행세를 하는 알렉산드르에게 항공권 구매로 돈을 입금했다.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 모두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분명, 피해자들은 각자가 보낼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보냈다.

두 명의 남성은 후하게 금액을 이체했는데 한 명은 19만8천700루블리를 다른 남성은 11만 400루블리를 이체해주었다. 그외 4명은 각각 5만 3000루블리, 1만900루블리, 1만500루블리, 9천300루블리 등을 이체했다. 미녀행세를 하는 알렉산드르는 돈을 보낸 각 남성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항공권을 사서 데이트하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하루, 이들이 넘도록 피해자들이 바라는 약속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들은 신고하러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아주 신속하게 알렉산드르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알렉산드르 이름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수사관들은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하고, 영악한 이 남성이 처음부터 범죄를 조직한 의도를 밝혀냈다. 알렉산드르는 재판에 회부되어 각각의 사건에 따라 판결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총 집행유예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알렉산드르는 약 3년의 형량 기간에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출두

해야 한다. 4명의 피해자는 재판하기까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해 재판부가 승인했다. 현재 알렉산드르가 14만 루블리가 조금 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이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прикинувшись красоткой в соцсетях, «развел» ухажеров на 400 тысяч на авиабилеты

Порона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суд рассмотрел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о мошенничестве с причинением значительного ущерба, совершенного жителем города Макаров.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 имени Александр(25 лет) завел фейковую страницу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Разместив в аккаунте фотографии симпатичной молодой девушки (настоящие или нет — в материалах не сообщают), парень знакомился с мужчинами и разводил их на личное знакомство.

Главной целью в основном ночных переписок были, конечно же, деньги. Их Александру переводили на «покупку» авиабилетов для фейковой красотки. В материалах дела значится шестеро потерпевших. Судя по всему, каждый из них расставался с той суммой, с которой мог.

Так, двое из мужчин совершили щедрые переводы, один — на 198 700 рублей, второй — на 110 400 рублей. Еще четверо «закинули» на счет 53 000, 10 900, 10 500 и 9 300 рублей. Каждому из них Александр пообещал купить билет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 прилететь на свидание. Когда желаем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ни через день, ни через два и дольше, потерпевшие обратились с заявлениями в полицию.

Александра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вычислили: на что парень рассчитывал, не совсем ясно, ведь деньги поступали на счет, открытый на его имя. Также следователи восстановили стертые переписки и доказали изначальный преступный умысел хитрого островитянина. Александра отправили под суд.

За каждый из эпизодов парню назначили по 2 года условного срока, а путем частичного сложения наказаний вышло три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но тоже условно.

При этом около трех лет осужденному придется регулярно отмечаться в полиции. Четверо потерпевших в рамках того же судеб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заявили материальные иски, которые суд удовлетворил. Теперь Александр выплачивает обманутым женихам немалым более 140 тысяч рублей. Решение вступило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석혜경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존경하는 석혜경 선생님!
구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50여년의 세월을 우리 신문사에서 재직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장기간 번역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기 전 10여년간은 신문 교정을 봐주셨습니다.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좀 안되었어도 선생님은 신문사와 연락을 끊지 않으시고 늘 신문사 걱정을 하십니다. 선생님의 최고의 한국어 지식, 신문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응원하시고 귀감이 되어 주신 석혜경 선생님, 존경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댁의 행복과 안녕을 빌며 손자녀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8-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